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수특 152p]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루는 기운이 쇠진하여 죽기에 임하였더니 문득 해산하니 여러 날 굶은 산모가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정신을 수습하여 태어난 아이를 보니 이 곧 남자이거늘 일희일비하여 탄식하고 한탄하기를,

“박명한 죄로 금섬이 죽고, 월매 또한 죽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참혹하지 아니하리오?”

[A] 니 어찌 참혹하지 아니하리오?”

하여 아이를 안고 이르되,  
“네가 살면 내 원수를 갚으려니와 이 지함 속에 들었으니 뉘라서 살라리오?”

하며 목이 매어 탄식하니 그 부모의 참혹함과 슬픔을 이루 측량치 못할러라.

(중략)

원수가 이에 청충마를 채찍질하여 필마단기로 삼 일 만에 황성에 득달하니라.

이때 조 씨가 다시 형들을 차리고 월매를 잡아내어 형들에게 올려 매고 엄히 치죄하며 유 부인의 간 곳을 묻되 중시 승복하지 아니하고 죽기를 재촉하는지라. 조 씨가 치다 못하여 그치고 차후에 혹 탄로할까 겁을 내어 가만히 수건으로 목을 매어 거의 죽게 되었더니 뜻밖에 승상이 필마로 들어와 말에서 내려 정히 들어오더니 문득 보니 한 여자가 백목으로 목을 매었거늘 놀라 자세히 보니 바로 월매라.

바삐 끌러 놓고 살펴보니 몸에 유혈이 낭자하여 정신을 모르는지라. 즉시 약을 흘려 넣으니 이성한 후 정신을 차려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차리지 못하니 승상이 불쌍히 여겨 이에 약물로 구호하며 쾌히 정신을 진정하거늘 원수가 연고를 자세히 물으니 월매가 이에 금섬이 죽은 일과 유 부인이 화를 피하여 지함 속에 계심을 자세히 고하니 승상이 분하여 급히 월매를 앞세우고 구렁에 가 보니 유 부인이 월매의 양식에 의지하여 겨우 목숨을 보전하다가 해산하며 복중이 허한 중 월매가 옥중에 곤하매 어찌 양식을 이으리오? 여러 날을 절곡하매 기운이 쇠진하고 지기가 일신에 사무치니 몸이 부어 얼굴이 변형되어 능히 알아볼 수 없는지라. 그 가련함을 어찌 다 측량하리오? 아이와 부인을 월매로 하여금 보호하라 하고 내당에 들어가 왕비께 뵈오니 왕비가 크게 반겨 승상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만리 전장에 가 대공을 세우고 무사히 돌아오니 노모의 마음이 즐겁기 측량없도다. 그러나 네가 출전한 후 가내에 불측한 일이 있으니 그 통한한 말을 어찌 다 형언하리오?” 하고 충렬부인의 자초지종을 말하니 승상이 고하기를,

“모친은 마음을 진정하옵소서. 처음에 충렬의 방에 간부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오?”

“노모의 서사촌 복록이 와서 이리이리하기로 알았노라.”

승상이 대로하여 복록을 찾으니 복록이 간계가 발각될까 두려워하여 벌써 도주하였거늘 승상이 외당에 나와 형들을 배설하고 옥졸을 잡아들여 국문하되,

“너희들이 옥중의 죽은 시신이 충렬부인이 아닌 줄 어찌 알았으며 그 말을 누구더러 하였느냐? 은휘\*치말고 바른대로 아뢰라.”

하는 소리 우레와 같으니 옥졸들이 황겁하여 고하기를,  
“소인들이 어찌 알았겠습니까마는 염습할 때에 보니 얼굴과 손길이 곱지 못하여 부인과 다름을 소인 등이 의심하여 서로 말할 적에 정렬부인의 시비 금련이 마침 지나다가 듣고 묻기에 소인이 안면에 엮매여 말하고 행여 누설치 말라 당부하올 뿐이요, 후일은 알지 못하나이다.”

승상이 들은 후 대로하여 칼을 빼어 서안을 치며 좌우를 꾸짖어

“금련을 바삐 잡아들이라.”

호령하니 노복 등이 황황하여 금련을 잡아다 계하에 꿰리니 승상이 고성으로 묻기를,

“너는 옥졸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말하였느냐?”

금련이 혼비백산하여 아뢰기를 정렬부인이 금은을 많이 주며 계교를 가르쳐 남북을 입고 충렬부인 침소에 들어가 병풍 뒤에 숨었던 일과 정렬부인이 거짓 병든 체하매 충렬부인이 놀라 문병하고 탕약을 갈아 드려 밤이 깊도록 간병하시니 정렬부인이 병이 잠깐 낫다 하고 충렬부인더러 ‘그만 침소로 가소서.’ 하니 충렬부인이 마지못하여 침실로 돌아가신 후 조 부인이 성복록을 청하여 금은을 주고 왕비 침전에 두세 번 참소하던 말을 자초지종을 낱낱이 고하니 왕비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통곡하여 말하기를,

“내 불명하여 악녀의 꾀에 빠져 애매한 충렬을 죽일 뻔하였으니 무슨 낯으로 현부를 대면하리오?”

하고 슬퍼하니 승상이 고하기를,

“이는 모친의 허물이 아니옵고 소자가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죄오니, 바라옵건대 모친은 심려치 마소서.”

왕비가 눈물을 거두고 침석에 누워 일어나지 아니하니 승상이 재삼 위로하고 즉시 조 씨를 잡아들여 계하에 꿰리고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네 죄는 하늘 아래 서지 못할 죄니 입으로 다 읊기지 못할지라. 죽기를 어찌 일지나 용서하리오마는 사사로이 죽이지 못하리니 천자께 주달하고 죽이리라.”

[B]

조 씨가 애달과 가로되,

“첩의 죄상이 이미 탄로되었으니 상공이 임의대로 하소서.”

승상이 노하여 큰칼을 씌워 궁 옥에 가둔 후 상소를 지어 천정에 올리니 그 글에 쓰여 있기를,

「승상 정을선은 돈수백배하옵고 성상 탐전에 올리나이다. 신이 황명을 받자와 한번 북 쳐 서용에게 항복 받고 백성을 진무하온 후 회군하려 하옵더니 신의 집에 급한 소식을 듣고 바빠 올라와 본즉 여차여차한 가변이 있사오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일이 비록 신의 집 일이오나 스스로 처단하지 못하여 이 연유를 자세히 상달하옵나니 원하옵건대 폐하는 극형으로 국법을 쓰시어 죄인을 밝히 다스리시고 신의 집 시비 금섬이 상전을 위하여 죽었사오니 그 원혼을 표창하시기 바라나이다.」

하였고 그 끝에 유 씨가 지함에 들어 해산하고 월매의 충의를 힘입어 연명 보전하였음을 세세히 주달하였더라. 상이 본 후에 대경하사 가라사대,

“승상 정을선이 국가의 대공을 여러 번 세운 짐의 주석지신\*이라. 가내에 이런 해괴한 변이 있으니 어찌 한심치 아니리오.”

이에 왕명을 내려 말씀하시기를,

“정렬과 금련의 죄상이 전고에 짝이 없으니 당장에 참수하라.”

하시니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이 여인의 죄가 중하오나 조왕의 딸이요, 승상의 부인이니 참형을 쓰심이 너무 과하오니 다시 전교하사 집에서 사사하심이 옳을까 하나이다.”

천자가 옳게 여기사 비답을 내리시되,

「짐이 덕이 부족하여 경사는 없고 변괴가 일어나니 매우 참괴도다. 비록 그러하나 정렬은 일국 승상의 부인이니 특별히 약을 내려 집에서 죽게 하나니 경은 그리 알고 처리하라. 금섬과 월매는 고금에 없는 충비니 충렬문을 세워 후세에 이름이 나타나게 하라.」

하시니 승상이 사은하고 퇴궐하여 즉시 조 씨를 수죄하여 사약한 후 금련은 머리를 베고 그 나머지 죄인은 경중을 분간하여 다스리고 금섬은 다시 관곽을 갖추어 예로써 장례하고 제 부모는 속량\*하여 의식을 후히 주어 살게 하고 충렬문을 세워 주고 사시로 향화를 받들게 하고 월매는 금섬과 같이하여 충렬부인 집 안에 일좌 대가를 세우고 노비 전답을 후히 주어 일생을 편케 제도하니라.

- 작자 미상, 「정을선전」 -

\* 은휘: 꺼리어 감추거나 숨김.

\* 주석지신: 나라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신하.

\* 속량: 노비의 신분을 풀어 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